



북한지역의 설화 〈마십굴〉 전설의 서사를 통한 분단서사의 극복 가능성 고찰

A Study on the Way to overcome the Epic of Division through North Korean Folklore 〈A Masip Tunnel〉

저자 (Authors)	조홍윤 Cho, Hong Youn
출처 (Source)	통일인문학 55 , 2013.05, 335-376 (42 pages) The Journal of the Humanities for Unification 55 , 2013.05, 335-376 (42 pages)
발행처 (Publisher)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The Institute of Humanities Research in Konkuk Univ.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230815
APA Style	조홍윤 (2013). 북한지역의 설화 〈마십굴〉 전설의 서사를 통한 분단서사의 극복 가능성 고찰. 통일인문학, 55, 335-376.
이용정보 (Accessed)	건국대학교 203,252,***.223 2017/12/13 22:5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북한지역의 설화 <마십굴> 전설의 서사를 통한 분단서사의 극복 가능성 고찰*

조홍윤**

1. 서론
2. <마십굴> 전설 개관
3. <마십굴> 전설의 서사에 투영된 분단서사의 일면과 그 극복
 - 3.1. 마십 부부의 이별 상황과 그에 투영된 분단서사의 일면
 - 3.2. 마십이 지닌 인민영웅(민중영웅)의 형상을 통한
분단서사의 극복 가능성
4. 북한 설화에 대한 연구에 작용하는 분단서사의 극복 가능성
5. 결론

국문초록

90년대 이후, 북한의 구비문학 분야에 대한 연구가 심심치 않게 이루어졌고,

.....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61-A00008). / 이 논문은 2013년 2월 23일 통일인문학 제14회 국내학술심포지엄—주제: 문학치료학을 통한 역사적 트라우마 극복—에서 「북한 지역의 설화 <마십굴> 전설의 서사를 통한 분단서사의 극복 가능성 고찰」로 발표되었던 것이다. 당시 좌장을 맡아주신 신동훈 선생님과 지정 토론을 해주신 홍나래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남북한의 체제적 차이에 의해 형성된 북한 설화관의 특수성에 주목한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북한의 설화에 대한 연구가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차이를 부각시키는 일보다 남북한의 설화 연구가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인다. 그러한 생각으로 이 연구에서는 북한 구전문학계에서 주요한 자료로 여겨지고 있는 <마십굴> 전설을 소개하며, 그 서사가 지닌 힘이 무엇인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특히 <마십굴>의 서사는 심층적인 차원에서, 현재 남북한의 분단 상황을 고찰시키고 있는 분단서사의 일면을 보여 주는 지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 논의를 통하여 분단서사를 극복하고 통합서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북한 설화를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이후의 연구 방향에 하나의 제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제어 북한설화, 마십굴, 분단서사, 통일, 북한, 구전문학

1. 서론

1988년 해금조치 이후, 북한 문학과 관련한 출판물들이 간간히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그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것은 구비문학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후 북한의 설화와 설화관에 대한 소개나 연구가 심심치 않게 이루어진 바 있다.¹⁾ 그러나 북한의 설화에

.....

1) 김화경, 「북한 설화의 변개 실태에 관한 연구」, 『인문연구』 제17권 2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6 ; 김화경, 「북한의 설화 연구 실태에 관한 고찰」, 『민족문화논총』 제16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 김문태, 「북한의 설화 연구—북한설화집을 중심으로」, 『누리와 말씀』 6호,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한 남한의 연구들은, 그것이 직간접적으로 통일 문제에 대한 것임을 표방하면서도, 그 체제옹호적인 특수성에 주목하여 남한과 얼마만큼 관점의 차이를 보이는데 관심이 집중된 경향이 있다. 물론 설화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임을 부인할 수 없고, 그러한 성과들이 가치로운 것임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차이’의 확인 과정을 통해 우리 연구자들은 오히려 남북의 학문적 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²⁾ 체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

1999 ; 이복규, 「북한 설화에 대하여—관련 자료집의 현황과 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제4집,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1 ; 김의석, 「북한 설화에 나타난 주제론 연구—조총련계 학생용 교재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3권,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2001 ; 김준기, 「북한의 신화 연구에 관한 고찰」, 『한국문화연구』 제5집,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2 ; 김영희, 「북한에서의 구전설화 전승과 연구」, 『한국문화연구』 제5집,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2 ; 한정미, 「북한의 설화인식과 전설의 도구화」, 『민속학연구』 15호, 국립민속박물관, 2004 ; 한정미, 「북한의 문예정책과 구비문학의 활용 양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김문태, 「북한의 구비문학 장르 인식과 관점 연구」, 『어문연구』 제33권 3호, 한국어문연구학회, 2005 ; 김중근, 「북한의 구전설화에 대한 인식 고찰」, 『국문학연구』 22호, 국문학회, 2010 ; 은현정, 「설화에 대한 남북한의 관점과 소통 가능성의 전망—열 설화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논총』 제50집,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2010 ; 박재인, 「〈주몽신화〉의 ‘유화’에 대한 북한의 관점과 ‘양육’의 덕목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고찰」, 『겨레어문학』 제49집, 겨레어문학회, 2012 등이 있다.

- 2) 북한의 신화 연구에 대한 논의를 결론짓는 다음 언급을 보면 그러한 경향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초기 유물사관에 의한 철저한 고증과 주도면밀한 어원적 고찰을 통해 포착해 낸 역사적 사실들은 소박하기는 하지만 나름의 성과를 인정할 만한 것들이 많아 세부적인 사항은 남한의 신화 연구에서도 참고를 할 만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들의 주체사상이 파행의 국면에 접어든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흐름에 병행하여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한 돌연변이와 같은 무리수를 두고 있다. 또한 북한 정통성의 입증이라는 의도에서 남한 신화를

북한의 연구 성과들에 대해 막연한 편견을 쌓아가고, 그 취약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상대적 우월성을 드러내는 경향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소통의 가능성을 회의하게 하는 그러한 편견이 북한 문학을 바라보는 우리 연구자들에게 일종의 분단서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겠다.

이에 대해 김영희는 북한의 설화 전승과 연구 태도의 ‘다름’을 열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연구경향에 경종을 울리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있다고 하였다.³⁾ 그러한 점에서 ‘열(烈) 설화’에 대한 남북의 인식을 비교하여, 다소간 성 차별적 시각을 바탕에 두었다고 할 수 있는 ‘열(烈) 관념’에 대해 ‘품성’의 문제로 풀어낸 북한의 관점을 긍정하고 있는 은현정⁴⁾의 연구나, <주몽신화>에 대한 북한의 연구에서 ‘모성’의 의미를 찾아낸 박재인⁵⁾의 연구가 제시하는 방향성이 주목된다. 이들 연구가 보여준 성과가 그러하듯이, 북한의 설화 연구가 체제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양상에 낯설음을 느끼게 됨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경계하고 고개를 가로젓기보다 그러한 포장 이면에서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치에 주목하는 것이 북한의 설화에 대한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일 것이다. 또한 그러한 연구의 과정 속에서 남북의 분단 상황을 고착시키고 있는 분단서사를 극복하고 통합서사로 나아갈 방

.....

왜곡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다양한 건국 신화를 포괄적으로 품지 못하고 신화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김준기, 「북한의 신화 연구에 관한 고찰」, 『한국문화연구』 제5집,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2)

- 3) 김영희, 「북한에서의 구전설화 전승과 연구」, 『한국문화연구』 제5집,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2.
- 4) 은현정, 「설화에 대한 남북한의 관점과 소통 가능성의 전망—열 설화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논총』 제50집,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2010.
- 5) 박재인, 「<주몽신화>의 ‘유화’에 대한 북한의 관점과 ‘양육’의 덕목에 대한 문학 치료학적 고찰」, 『겨레어문학』 제49집, 겨레어문학회, 2012.

향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이에 북한지역의 설화로써, 북한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마십굴〉 전설을 소개하고자 한다. 비록 익숙하지 않은 설화이고 그에 대한 북한의 논의들도 우리에게 낯선 것이지만,⁶⁾ 이를 살펴봄으로써 그 서사가 지닌 보편적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면 남북한의 설화 연구가 소통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부의 이별’이라는 〈마십굴〉 전설의 서사적 상황은 현재의 남북한이 지닌 분단서사의 일면과 연결 지어질 수 있어, 그에 대한 연구의 의의가 더 크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마십굴〉 전설에 관한 북한의 연구를 참조하여 그 서사적 의미를 고찰하고, 〈마십굴〉 전설에 투영된 남북한 분단서사의 일면을 드러내어 그 극복 가능성을 발견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시도가 북한의 설화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하나의 제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마십굴〉 전설 개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자료의 개관 및 기본형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 이야기의 각편 자료들은 북한 출판물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현 상황으로 인해 그 존재여부나 실제의 텍스트를 접하기가 어려운 한계성이 있다. 남한에 들어온 출판물이라 해도 그 목록이나 개별 목차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가 힘든 상태이므로,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기

.....

- 6) 〈마십굴〉 전설은 분단 이전에 채록된 3편과 『구비문학대계』에 채록된 1편을 통해 남한에서도 전해지고는 있으나, 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위한 지속적인 탐색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존재 여부를 파악한 것 중 실제 텍스트를 접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

- ① 〈수안 성동의 마십굴〉—이흥기, 『조선전설집』, 조선출판사, 1944(재출간, 이복규, 『이흥기의 조선전설집 연구』, 학고방, 2012.)
- ② 〈마십굴〉—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46.
- ③ 〈도하동의 마십 부부〉—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문학사실, 『재미나는 옛이야기』 3권, 근로단체출판사, 1986.
- ④ 〈말쌩굴〉—임석재, 『임석재 전집』 제3권, 평민사, 1987(1932년 채록 자료).
- ⑤ 〈마십굴〉—리진록 외, 『조선민간전설』, 조선민족사, 1990.
- ⑥ 〈마십 이야기〉—『한국구비문학대계』 8집 14책.

이 중 ①, ②는 분단 이전에 발간된 것이고 ④도 분단 이전에 채록된 자료가 남한에서 발간된 경우로서 모두 남한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이다. ⑥의 경우 경상남도 하동에서 채록된 자료이지만 황해도 지역의 이야기라는 전제를 하고 구연을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전설이 광포되어 다른 지방에 정착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의 경우는 북한에서 출간되었지만 남한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고, ⑤는 중국의 조선족 계열 출판사에서 간행된 것이다. 이 밖에 더 많은 이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료의 보충은 이후의 문제로 남겨 두고 확인 가능한 텍스트를 통해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다.

목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각편의 제목은 관련 증거물인 굴의 명칭과 관련하여 〈마십굴〉, 〈말쌩굴〉 등으로 붙여지거나, 서사 주체의 이름과 관련하여 〈마십 이야기〉, 〈마십 부부〉 등으로 붙여지고 있다. 이처럼 각편마다 제목이 제각각이지만, 북한에서는 〈마십굴〉이라는 제목을 이 전

설에 대한 보통명사처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도 〈마십굴〉 전설이라 지칭하는 것이 혼선을 피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전설의 경우 관련 지형지물의 명칭으로 제목을 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므로 〈마십굴〉 전설이라 부르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 본다.

우선 제시된 텍스트를 살펴 〈마십굴〉 전설의 기본형을 정해본다. 각편들은 서사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③, ⑤의 경우는 윤색된 흔적이 짙고, ⑥의 경우는 멀리 전파된 영향인지 결락된 화소가 있어 기준으로 삼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①, ②, ④의 경우에는 두드러진 차이가 없어 어느 것이든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나, 서사적으로 보다 완결성을 띠고 있는 ④를 중심으로 각편들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형을 제시한다.

- ㉠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받던 나무꾼 마십이 예쁜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 ㉡ 나무하러 산에 갔던 그가 사냥 중에 조난당한 원님 아들을 발견해 집으로 데려왔다.
- ㉢ 마십 내외의 구완으로 살아난 원님 아들은 몸이 다 나아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마십의 아내를 탐내 그녀를 유혹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였다.
- ㉣ 어느 날 마십이 자리를 비우자, 원님 아들은 지위와 재물로 마십의 아내를 유혹했지만 그녀는 그 유혹을 거부했다.
- ㉤ 집으로 돌아갔던 원님 아들은 사령들을 이끌고 와서 마십의 아내를 끌고 갔다.
- ㉥ 마십이 원님 아들의 배은망덕을 원망하자, 원님 아들은 바위산에 50리 되는 굴을 뚫는다면 아내를 돌려주겠다고 놀렸다.
- ㉦ 그 말을 곧이들은 마십이 바위산에 굴을 파기 시작하자, 동네사람들은 “백날 파면 뚫릴 것이다.” 하며 마십의 어리석음을 비웃었다.

- ㉠ 그 말도 곧이들은 마십은 동굴 벽에 하루 한 개씩 금을 그어가며 작업을 계속했다.
- ㉡ 99일이 지나도록 작업은 크게 진척이 되지 않았지만 마십은 열심히 굴 파기에 몰두했고, 마침내 100일이 되자 맞굴이 뚫리며 단번에 50리 길의 굴이 만들어졌다.
- ㉢ 굴에 들어가 보니 그 끝이 동헌의 후원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곳에서는 그의 아내가 치성을 드리고 있었다.
- ㉣ 마십이 “내 색시 데리고 간다.” 하고 외치며 아내와 함께 굴속으로 들어가자, 이 소리를 들은 원님 아들은 사령들로 하여금 내외를 쫓게 했다.
- ㉤ 사령들은 들어가자마자 무너진 굴로 인해 다 죽음을 맛았다.
- ㉥ 원님 아들이 맞은편 굴 입구가 있는 쪽으로 가 불을 지르니 굴 안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불을 꺼 버리고, 원님 아들은 그 물에 휩쓸려서 죽고 말았다.
- ㉦ 이 동굴 안에는 지금도 마십이 굴을 뚫으며 그었던 금이 그어져 있고, 굴 입구에서는 맑은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처럼 〈마십굴〉은, 주인공인 마십이 원님의 아들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일정한 과제를 해결하여 다시금 아내를 되찾는 점에서 〈왕이 된 새색시〉나 〈우렁색시〉 등과 같은 관탈민녀형(官奪民女形) 설화 유형의 한 진행을 보여 주고 있다.⁷⁾ 그러나 남편의 잘못에 의해 부부의 고난이 촉발

.....

7) 〈왕이 된 새색시〉는 그대로 〈마십굴〉의 서사구조와 병치될 수 있으나, 〈우렁각시〉의 경우에는 기본 화소에 관탈민녀형 화소가 붙어 부부의 재회로 결말을 맞게 되는 유형에 한정한다. 이에 대한 남한의 주요 연구로는, 최래옥, 「관탈민녀형 설화의 연구」, 『한국고전산문연구』, 장덕순선생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1981 ; 이수자, 「〈우렁색시〉형 설화의 연구—변이양상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7집, 이화어문학회, 1984 ; 노영근, 「민담과 ‘아내 찾기’ 화소」,

되고, 아내를 되찾기 위한 남편의 과제 수행에 아내의 지시가 결정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왕이 된 새색이>나 <우렁색시>와는 달리, <마십굴>은 부부의 이별에 일정 부분 책임을 전가할 만한 마십의 잘못이 없다는 점,⁸⁾ 이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마십의 주도적 노력이 돋보이는 점에서 변별된다.⁹⁾ 이렇게 여타의 관탈민녀형 설화와 변별되는 지점에 <마십굴> 서사의 특질이 있다고 하겠다.

최초의 결합 과정에 마십의 잘못이나 금기의 위반이 없다는 점에서, 이 서사는 부부의 결합 자체를 문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온전한 부부의 결합이 타의에 의해 깨어진 이별의 상황에 집중된다. 또, 문제의 해결이 마십의 주도적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서사는 이별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마십의 행동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마십굴> 전설의 서사를 분석함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지점도, 서사의 주체인 마십이 당면한 이별의 상황과, 그것을 해

.....

『어문학논총』 제20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1 ; 김종군, 「<왕이 된 새색이> 설화의 서사적 특성과 의미」, 『겨레어문학』 제38집, 겨레어문학회, 2007 등이 있다.

- 8) <왕이 된 새색이>에서는 주인공인 새색이가 높은 신분의 미인 아내를 얻고서는 아내를 바라보느라 일을 등한시하는 상황이 설정된다. 이에 남편을 면려하기 위해 아내가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주어 일을 내보낸 것이, 그 초상화가 바람에 날아가 왕에게 아내의 미모가 알려지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우렁각시>에서도 떼가 되지 않았다며 결연을 미뤄줄 것을 요청하는 우렁각시의 말을 따르지 않고 결연을 고집한 주인공의 금기 위반이 문제가 된다.
- 9) <왕이 된 새색이>에서는 석삼년을 공부한 후에 새털 옷을 입고 걸인 잔치에 와서 자신을 되찾으라는 아내의 지시에 따라 부부의 재회가 이루어진다. <우렁각시>에서도 새털 옷을 입고 찾아오라는 아내의 지시를 따르거나, 아내의 신이한 능력에 의해 원님과의 내기에서 승리하여 아내를 되찾는다. 이처럼 두 설화에서는 부부의 재회에 아내의 능력과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하기 위한 마십의 행동방식에 초점을 두어야 하겠다.

3. <마십굴> 전설의 서사에 투영된 분단서사의 일면과 그 극복

3.1. 마십 부부의 이별 상황과 그에 투영된 분단서사의 일면

<마십굴>은 부부의 결연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서사가 이루어진다. 이는 서사의 시작이 부부의 결연 과정으로 되어 있는 <왕이 된 새샘이>나 <우렁각시>와 차이가 있다. <마십굴>이 온전한 하나의 단위로 존재하던 부부가 이별을 겪고 그것을 극복하는 서사라면, <왕이 된 새샘이>와 <우렁각시>는 개체인 두 사람이 만나는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불안정한 결연이 이루어지고, 그 대가로 일정한 과제를 수행하여 온전한 결연을 다시 이루어 내는 서사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마십굴>의 서사가 이별과 극복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면, <왕이 된 새샘이>나 <우렁각시>는 결연 그 자체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서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십 부부의 이별에는 그들의 행위나 의사가 문제되지 않는다. 오직 원님 아들이라는 항거할 수 없는 타율적 힘에 의해 부부의 이별 상황이 발생하며, 부부는 아무런 잘못 없이 원하지 않는 이별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아무런 잘못 없이 온전하던 결합이 깨어지게 된 상황은 이후의 서사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잘못이 없기에 그 서사는 언제나 부부의 재결합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결연 과정에 금기의 위반을 상정하고 있는 <우렁각시>의 경우에 많은 각편이 부부의 재결합이 실패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이수지는, 금기를 잘 지킨 부부는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지만 대부분 제시된 금기를 지키지 못하고 급하게 결혼하여 불행을 겪게 되고, 이야기의 결말이 비

극으로 끝나거나 시련 과정을 거치는 형태가 나타난다고 하며, 금기의 제시와 이행에 따라 이야기의 전승 방향이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¹⁰⁾ 이처럼 <우렁각시>의 경우 남편의 금기 위반에 일정 부분 책임을 전가하게 됨으로써 이후의 서사가 재결합의 실패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반면 그러한 금기 위반이 없는 <마십굴>의 서사는 언제나 부부의 재결합이 성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부부가 온전한 결합을 통해 하나의 구성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은, 그러한 결합의 깨어짐으로 인해 결합의 구성원인 마십과 아내의 존재성이 훼손됨을 의미한다. 이별의 상태로는 온전한 존재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없기에, 부부는 어떠한 시련을 겪더라도 다시금 온전한 결합의 상태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다.¹¹⁾

그러나 아무런 잘못 없이 맞닥뜨린 이별은 이후의 재결합을 약속하는 한편으로 이별 당시의 비극성을 더욱 짙게 한다. 목숨을 구해 준 선행의 대가로 오히려 이별의 고난을 받게 된 마십 부부의 서사는, 서사 주체인 마십의 절망을 더욱 절절하게 형상화하는 동시에, 부부의 이별과 그 이별의 상황을 만들어 낸 원님 아들의 불합리성을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마십굴>에 대한 북한의 논의가 원님 아들의 부조리에 의한 부부의 이별 상황에 주목하게 되는 것도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

10) 이수자, 「<우렁색시>형 설화의 연구—변이양상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7집, 이화어문학회, 1984, 166쪽.

11) <우렁각시>의 경우 재결합의 실패로 이어지는 각편의 경우에 부부가 죽음에 이르는 유형이 있다. 남편이 홀로 늙어 죽거나 자살을 하든지, 부부가 죽어 남자는 새가 되고 여자는 나무가 되었다는 결말이다. <우렁각시>의 부부 결합은 어느 정도의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결말이 나타나는 것은 그 결합의 깨어짐이 그들의 존재성을 심각하게 훼손함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부부의 존재태가 온전한 한 단위였다고 할 수 있는 <마십굴>의 경우 재결합의 실패는 필연적인 비극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전설은 이 굴을 통하여 어진 마십의 불우한 생활 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인민들에게 가혹한 불행과 악덕을 가져다주고 행복을 짓밟는 고을원의 아들 농에 대한 반인민적 죄상을 폭로하고 그 멸망을 선고하고 있다.¹²⁾

전설은 이와 같이 환상적이며 낭만적인 형상 속에서 원의 아들의 전횡을 폭로하고 마십 부부가 당한 억울한 처지를 보여주면서 착취자들을 끝없이 증오하고 미워하는 인민들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구현하고 있다.¹³⁾

여기에는 마십이 겪게 되는 이별이 전적으로 그들 부부의 문제가 아닌 부조리한 외부적 힘, 즉 원님 아들의 횡포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이 엿보인다. 원님 아들은 당대의 부조리한 절대 권력자를 대표하는 인물 형상으로서 구시대의 낡은 질서를 상징한다. 따라서 <마십굴>의 이별 상황은 온전한 결합을 이루고 있던 부부의 관계를 끊어 놓은 부당한 구시대의 질서에 의한 것이며, <마십굴>의 서사는 그러한 부당한 질서를 극복하고 온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인간 해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는 문제와 연결된다.

<마십굴>의 이별 상황은, 남북한의 분단 과정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 준다. 제국주의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쓰는 중에 강제적인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아들여야 했던 우리 민족이, 그 인고의 시간을 견뎌낸 대가로 맛닥뜨린 것은 민족의 분단이라는 비극이었다. 남북 분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는다. 중요하고도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 민족의 중론에 의한 분단이 아니었으며, ‘원님 아들’과도 같은 불합리한 타율적

.....

12) 리동원, 『조선구전문학연구 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111쪽.

13) 장권표, 『조선구전문학개요(고대중세 편)』, 사회과학출판사, 1990, 77쪽.

권력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온전한 한 단위로 존재했던 부부가 부당한 권력에 의해 아무 잘못 없이 의도하지 않은 이별을 맞은 것처럼, 요구한 역사의 과정 속에 하나의 민족으로 존재했던 남북한이 부당한 권력 작용에 의한 분단을 맞게 된 것이다. 원하지 않는 분단 상황은 원하지 않는 전쟁으로 이어지고, 분단 체제는 견고하게 고착되었다. 마치 마십과 그의 아내 사이에 놓인 50리 지름의 바위산처럼,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커다란 장벽이 남과 북 사이에 놓이게 된 것이다.

아내를 되찾는 대가로 일정한 과제의 수행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바위산에 50리의 굴을 뚫는 과제가 제시되는 <마십굴>도 여타 관탈민녀형 설화와 구조적 유사성을 지닌다. 그러나 과제의 제시가 아내에 의해 이루어지는 <왕이 된 새댁이>나 <우렁각시>와는 달리, <마십굴>은 이별 상황을 조장한 원님 아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변별된다.

김중균은 <왕이 된 새댁이>에서 아내에 의해 제시되는 과제들이, 함께 살게 된 상황에 안주하여 자신의 얼굴만 바라보는 잘못을 저질렀던 남편의 행동에 의해 촉발된 이별을, 남편의 능력을 배양하여 왕에 대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전인적인 훈련으로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 보았다. 그에 이 서사의 맥락이 <온달>이나 <서동>의 서사와 같은 ‘남편 출세 돕기형 서사’에 닿아있다고 본다.¹⁴⁾ 또한 이 과제 수행 과정은, 결론적으로 잘못이나 금기에 대한 대가적 수행이라는 점에서 <우렁각시>에서의 과제 수행과 맥락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마십굴>에서 제시되는 과제는 부부의 관계를 침범한 원님 아들에 의한 과제로서 잘못을 벌충하기 위함도 아니고, 마십의 존재적 성장을 위한 배려라고도 볼 수 없다.

.....

14) 김중균, 「<왕이 된 새댁이> 설화의 서사적 특성과 의미」, 『겨레어문학』 제38집, 겨레어문학회, 2007, 143-145쪽.

그러니까 이 녀석은 “네가 저 벼랑에 굴을 파서 한 오십 리쯤 뚫어노면 네 색시를 돌려주마” 하고 갔다. 이 말은 물론 나무꾼을 놀리느라고 한 말이다.¹⁵⁾

위의 인용에 드러나듯이, 원님 아들은 마십이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조건을 내세워 그가 아내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때 거대한 바위산은 그 자체로 원님 아들의 권력을 상징하고 있으며, 그것을 뚫어보려는 말은 마십과 자신의 힘의 차이를 극복하고자 아내를 되찾아 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말하자면 원님 아들은 조건의 제시를 통해 일종의 ‘분단서사’를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분단서사’란 분단의 구조를 심화시키고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자기서사를 말한다.¹⁶⁾ 인간의 삶을 서사로서 이해하는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에서는, 한 인간이 삶을 운영해 나가는 바탕이 되는 전인식(全認識)적인 틀거리가 존재한다고 보는데, 이를 ‘자기서사’라 칭한다. 삶의 주체, 곧 서사 주체의 내부에서 작동하는 이 자기서사는 주체 외부로부터 주어진 ‘작품서사’의 영향으로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자기서사와 작품서사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체적 삶의 치료를 모색하는 것이 문학치료의 대략적인 열개라 하겠다.¹⁷⁾

작품 속에서 원님의 아들은 아내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바위산이라는

.....

15) 임석재, 『임석재 전집』 제3권, 평민사, 1987, 219쪽.

16) 정운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통일서사」, 『통일인문학논총』 제47집, 2009, 7쪽.

17) 이러한 설명은 필자가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에 대해 나름대로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히 정리한 것이며,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제9집, 2008.

구체적인 실체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마십이 아내를 되찾는 일이 ‘도저히 되지 않을 일’이라는 인식을, ‘바위산’이라는 구체적인 실체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그러한 작품서사의 영향으로 부부의 분단 상황을 지속시키도록 하는 분단서사를 마십의 자기 서사로 작동케 하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다.

무력함을 일깨우고 포기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이별의 상황을 지속하도록 만드는 분단서사는, 마십의 이웃들에게 전파되고 확대되어 마십을 괴롭힌다.

그러나 나무꾼은 그 말을 끝이듣고 그날부터 그 벼랑에 굴을 파기 시작했다. 동네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백날 파면 뚫릴 것이라고 했다. 이것도 물론 놀리는 말이었다.¹⁸⁾

이웃들이 마십의 억울한 사정을 몰랐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하기에 마십을 놀리고자 한 것은 아니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들은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일에 매달려 스스로를 괴롭히는 마십의 미련한 모습에 답답함을 느꼈던 것일 수 있다. 어쩌면 자신들과 같은 처지라고 할 수 있는 마십이, 권력자로부터 당한 횡포에 분노를 느꼈던 이유일 수도 있다. 그러나 까닭 없이 폭력을 당해도 분노를 표현할 길이 없다. 억눌러야 할 분노가 클수록 한마디 원망도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가 더욱 부각되고, 자신들을 억누르는 권력의 폭력성에 더욱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결국은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롭다고 생각하게 되고, 마십이 아내를 되찾기를 바라면서도 되지 않을 일로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마십의 모습에 더 큰 안타까움을 느꼈던 것이라 생각한 것인지도

.....

18) 임석재, 『임석재 전집』 제3권, 평민사, 1987, 219쪽.

모른다.

반대로 권력자에 항거하는 마십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그와 같은 처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마십의 도전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으로 내뱉은 조롱일 수도 있다. 바위산은 그 자체로 철옹성의 권력을 상징하는 바, 그곳에 구멍을 뚫기 위해 단단한 바위에 정을 부딪치는 반탄력으로 마십이 받게 되는 충격은, 공고한 지배 권력에 저항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받게 되는 고통이다. 그렇게 지배계급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피폐해져 가는 마십의 모습이 마을 사람들에게 반면교사로 작용하여, 이기지 못할 저항으로 고통 받기보다는 권력자의 편에 서서 지배계급의 권력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간에, 마을 사람들의 발언은 마십과 원님 아들과의 싸움에서 마십이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에 기반한다. 이것은 마십에게 심고자 한 원님 아들의 분단서사가, 그러한 상황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에게 ‘권력에는 맞설 수 없다.’라는 자기서사로 발현하게 되는 과정을 잘 보여 준다. 이렇게 하여 바위산은 그 자체로 마십의 고난과 원님 아들의 권력을 상징하는 동시에 마을 사람들의 분단서사를 내포하기까지에 이른다.

원님 아들이 ‘굴 뚫기’를 조건으로 내세워 분단서사를 조장한 것처럼, 남북의 분단 체제를 고착화하고자 하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남북 통합의 어려움을 강조한다. 어느 때에는 폭력으로, 어느 때에는 교묘한 말장난을 통해서 과증된 분단서사는 사회 전반을 통해 전파되고 확대되어 통일 회의론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그러한 세력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것도 불필요한 논쟁의 소지가 있어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퍼뜨렸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남북통일을 ‘되지 않을 일’로 여기게 하는 분단서사가 전파되어 있는 상황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50리 지름의 바위산은 원님 아들로 대변되는 부조리한 질서의 절대성

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마십과 아내의 분단을 상징하는 견고한 장애물이다. 따라서 그것을 뚫을 수 없다는 마을사람들의 분단서사는, 그로 상징되는 원님 아들의 권력, 분단 체제의 질서 그 자체를 극복할 수 없다는 태도를 이끌어낸다. 마찬가지로, 부조리한 질서의 산물인 남북의 분단 체제는 그 자체로 억압적 질서가 되어 우리의 미래를 좀먹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위산에 굴을 뚫어가는 마십을 조롱했던 이웃들의 시선처럼, 통일의 문제를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로 바라보는 시각이 퍼져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분단서사는 분단 체제라는 부조리한 질서를 개개인의 차원에서 강하게 고착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마십굴〉의 부부 이별과, 그에 대한 작품 속의 사회적 인식은, 우리의 남북 분단 상황과 맥락이 닿아 있다. 또, 마십과 아내의 이별 상황을 지속시키도록 하는 분단서사는 남북의 분단 체제를 지속시키고 있는 분단서사의 일면을 보여준다. 이에 통일의 문제를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게 하고 분단의 상황을 고착시키고 있는 분단서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마십굴〉의 이별 상황이 남북한의 분단서사가 지닌 일면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러한 이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마십의 행위에서 그 극복의 가능성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

3.2. 마십이 지닌 인민영웅(민중영웅)의 형상을 통한 분단서사의 극복 가능성

마십의 문제 해결 방식은 단순 명쾌하다. 앞을 가로막은 단단한 바위에 정을 찍어가며 오로지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마십이 취한 행동방식이었다. 이러한 행위가 어떻게 마십의 인물 형상을 만들고 작품의 서사를 이끌어어나가는지에 대해서는, 북한 연구자인 고정옥의 논의를 통해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작품의 슈제트는 주인공이 빼앗긴 안해를 찾아 행복한 생활을 다시 쟁취하려는 불붙는 희망을 안고 백날을 기약하고 배가의 노력으로 바위들을 깨는 데서부터 고도의 긴장성을 띠게 된다. 미래로 통하는 한 줄기 광명을 안고 오늘도 래일도 암벽을 뚫는 단조롭고도 간고한 로동—그것은 바로 봉건적 굴욕과 억압 하에서 온갖 난관과 곤난을 참을성 있게 극복하면서 앞날의 행복을 위하여 불요불굴의 투쟁을 계속하여 온 인민의 불패의 창조적 의욕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¹⁹⁾

여기서는 마십이 백일 동안 바위를 쪼기 시작하면서 이야기의 엷음새가 고도의 긴장성을 띠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판단에는 바위산을 뚫어가는 마십의 행위가 결정적인 서사의 분기점에 놓여 있으며, 그러한 행위를 이어가는 마십의 모습이 그의 인물 형상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시각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바위산에 50리의 굴을 뚫어가는 과정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매일이다. 그럼에도 마십은 아내를 되찾겠다는 염원으로 지극히 희박한 가능성을 붙잡고 그 과정을 묵묵히 감내해 나간다. 고정옥은 이러한 마십의 모습에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삶을 영위해 온 인민의 영웅적 모습을 발견하였다.

그러한 행위를 가능케 하는 것은 바보스러울 만큼 선량한 마십의 인물 성격이다. <마십굴> 전설의 각편들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십이 ‘바보’임을 상징하고 있다.

옛날에 이 굴 근처에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는데 이 나무꾼은 사람이 모자라서 남들한테 못난이 취급을 받았다.²⁰⁾

.....

19) 고정옥 저·신동훈 해제, 『조선구전문학연구』, 민속원, 2009(원저는 1962년 출간), 129쪽.

황해도 안디(아인테), 황해도 사램인디, 마십이, 이름이 마십인디, 마십이
는 일자무식 일꾼 말이지²¹⁾

‘모자란 사람’, ‘일자무식’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고정옥은 ‘바보’라는 표현을 빼고 근면함과 선량함으로 풀어서 설명한다.²²⁾ 이는 마십이 결코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 그의 비상한 선량함이 그를 바보 같은 모습으로 비추어지게 할 뿐이라는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장권표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전설에서 50리 굴을 뚫는 마십의 형상은 봉건적 지배에 순종하기만 하고 반항할 줄 모르는 무력한 존재인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마십에 대한 이러한 형상에는 안해에 대한 정이 깊고 로동에 근면하고 선량한 마십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인민의 념원이 구현되어 있다.²³⁾

이러한 판단은 중요하다. 바보놀음에 의한 우연의 산물로서 아내와의 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상한 선량함, 즉 인민적 성품을 무기로 자기와의 싸움을 이겨낸 끝에 아내와의 재회를 이루는 마십을 ‘인민적 영웅’의 형상으로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바보 같이 착한 사람’은 ‘바보라서 착한 사람’과 다르다. 바보라서 착

.....

20) 임석재, 『임석재 전집』 제3권, 평민사, 1987, 218쪽.

21) 『한국구비문학대계』 8집 14책, 515쪽.

22) 고정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마십굴>의 서사를 대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도 마십이 바보 같은 성격을 지녔음을 상정하고 있다. “마십은 온달과도 같이 《바보 마십》이라고 동리 사람들이 부른 산골의 일개 초부다.”(고정옥 저·신동훈 해제, 『조선구전문학연구』, 민속원, 2009(원저는 1962년 출간), 127쪽)

23) 장권표, 『조선구전문학개요(고대중세 편)』, 사회과학출판사, 1990, 77쪽.

한 사람이 요령이 없어 손해를 보는 사람이라면, 바보 같이 착한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요령을 피우지 않는 사람이다. 요령을 피우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선(善)’을 믿고 그것을 고수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이들의 눈에 미련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자신에 대한 믿음을 지켜 가다 보면 그것은 결국 신념이 되고 신념대로 행할 수 있는 우직한 행동력을 형성한다. 또한 신념은 자기 ‘선’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져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 능력을 형성한다.

마십은 바보 같이 선량한 사람, 신념이 있는 사람이었고, 신념에 기반한 우직한 행동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행동력은 마십이 바위산을 파서 50리의 굴을 뚫는 과제에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게 한다. 마십이 신념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를 되찾기 위해 굴을 파내는 일이 선택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우선은 아무런 잘못 없이 헤어졌다는 사실에서 아내를 되찾는 일에 대한 정당성이 있었다. 또, 아내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 그것은 마십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굴을 뚫고 나간 마십은 남편의 승리를 기원하며 치성을 드리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²⁴⁾ 그것은 앞서 이야기한 부부의 존재성 문제와도 연관된다. 본래 하나의 단위 존재로서 완전한 결합을 이루고 있던 마십 부부는, 이별의 상황을 통해 존재성을 훼손당했기에 다시 결합을 이루지 못하고서는 온전한 삶을 되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마십의 굴 뚫기는 그의 인간적 삶의 문제에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아내를 되찾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 일의 지난함과 고됨은 마십에게 문제가 될 수 없었다. 일을 완수하기 전에 죽음을 맞는다고 해도 마십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아내를 되찾는 일이 마십의 지상과제이며, 아내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50리의 굴을

.....

24) 이복규, 『이홍기의 조선 전설집 연구』, 학고방, 2012, 200쪽.

파는 일이라면, 다른 요령을 생각하기 전에 그 일에 매달리는 것이 마십의 행동방식이었던 것이다.

실상 원님 아들이 제시한 조건은 마십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마십은 극히 희박한 가능성에만 눈을 둔 채 굴을 파기 시작한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마십의 도전이 불가능하게만 보였다. 그리하기에 되지 않을 일에 매진하며 생고생을 자처하는 그가 미련하게 보여 조롱의 말을 내뱉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마십에게 또 다른 억압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마십은 그러한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커다란 가능성으로 승화한다. 이처럼 장애를 해체하여 가능성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인식 능력이 마십에게는 있었다. 50리의 바위굴을 파내는 조건을 듣고 그 어려움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것을 아내를 되찾을 가능성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백날 파면 뚫린다.’라는 이웃의 조롱을 막막한 앞날에 대한 희망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절망적 외연 속에 숨어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의 인식 능력이 결국 거대하고 단단한 바위산 속에 숨어 있던 동굴을 만나게 했고, 그 길을 통해 아내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마십이 동굴을 뚫어가는 과정은, 것처럼 신념에 기반한 우직한 행동력과 긍정적인 인식 능력으로 앞에 놓인 장애들을 해체하여 자신의 가능성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부조리한 지배계급의 권력을 상징하는 동시에, 아내와의 분단 상황 그 자체를 상징하는 바위산은 마십의 손에 의해 조금씩 안쪽으로 파여 가고, 파이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마십이 아내를 만날 가능성은 커진다. 마을 사람들의 분단서사가 작동한 결과로서 마십으로 하여금 도전을 포기하도록 의도된 ‘백날’의 의미도, 하루가 지날 때마다 이제는 마십의 공간으로 재구성된 동굴 벽에 새겨지면서 커져가는 마십의 성공 가능성을 나타내게 된다. 동굴이 파일수록, 백날 중 하루가 동굴 벽에 새겨질수록 마십을 억누르던 두 장애물은 해

체와 재구성의 과정을 통해 마십의 존재적 힘으로 전환되어 그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남북한의 분단서사를 극복하는 과정과도 맞물릴 수 있다. 바위산처럼 견고한 분단 체제의 질서는 그에 직면하여 뚫아내려는 신념적 노력에 의해 조금씩 해체되어 ‘소통의 길’로 변해 간다. 그 길이 뚫어짐에 따라, 우리 사회에 전파되어 있는 ‘도저히 되지 않을 일’이라는 분단서사도 조금씩 해체되어 그 길에 새겨지게 될 것이다. 굴이 깊어지고 그어지는 금이 늘어날수록,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이루어 낸 성과를 보여 주는 지표가 되고, 우리의 작업에 힘을 불어넣는 자부심이 될 것이며, 앞으로의 작업에 더 큰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다.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작동하는 분단서사를 통합서사로 바꾸어 가는 일이다.

마십의 존재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마십이 만들어 가는 동굴을 ‘자궁’의 상징이라 볼 수도 있겠다.

우리 동네에는 깎아 세운 듯이 높다랗게 서 있는 벼랑이 있고 이 벼랑
 한복판에는 말뚝굴이라는 굴이 있다. 그 굴 생김새가 마치 말뚝 같이 생겨서
 그런 이름이 붙는 모양이다.²⁵⁾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 마십이 판 굴의 생김새가 암말의 성기 같다고 하여 ‘말뚝굴’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 속에서 마십은 묵묵히 자신의 과제를 수행하는 가운데 존재적 힘을 키워가며 마침내 굴을 끝까지 뚫어 낼 수 있게 되고, 지배계급에 항거할 수 없었던 미력한 존재에서 모든 억압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존재로의 변모를 이루어 낸다. 이러한 존재적 변화는 이야기의 결말과 관련지어 의미심장하다.

.....

25) 임석재, 『임석재 전집』 제3권, 평민사, 1987, 218쪽.

나무꾼은 후원으로 나가서 보니께 저의 색시가 있어서 이 색시를 데리고 “내 색시 데리고 나는 간다”고 크게 소리 지르고 굴속으로 들어갔다. 원님 아들은 이 소리를 듣고 사령을 굴 안으로 들여보내며 잡아오게 했다. 그런데 굴은 무너져서 사령은 다 죽고 말았다. 원님 아들은 다른 사령을 데리구 그 동네로 달려갔다. 와 보니까 나무꾼과 색시는 아직 나오지 안했다. 원님 아들은 화가 나서 이놈 죽어 봐라 하고 굴에다 대고 불을 질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굴안에서 물이 폭포같이 쏟아져 나와서 불을 다 꺼버리고 그 물은 어찌나 많이 나왔던지 원님 아들은 그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다. 이 굴에는 금이 백 개 뚜렷이 그어져 있고 굴에서 맑은 물이 흘러 나오고 있다.²⁶⁾

결말에 이르러 마십은 자신이 뚫어낸 동굴을 따라가 자신의 아내와 재회한다. 아내를 발견하자마자 “내 색시 데리고 간다”라고 외치며 아내를 데려가는 마십은, 이미 원님 아들의 허락이 필요치 않은 유력한 존재로 변모한 상태이다. 그리고 부부는 다시 굴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부부를 쫓아 들이닥친 사령들이 굴이 무너져 죽고, 굴 입구에서 쏟아져 나온 물에 원님 아들이 휩쓸려 죽게 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궁의 상징성을 지닌 굴속에 부부가 다시 들어간 상태는 자궁에 수정란이 착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굴속에서 마십은 존재적 변화를 이루어 내고 공고한 지배계급의 억압을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그 혼자서는 새로운 질서를 배태할 수 없었다. 서사적 맥락에 따라 그의 변화를 촉발시킨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아내를 되찾아 온전한 존재성을 회복해야만 비로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성(性)적으로도 부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사회가 생성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

26) 임석재, 『임석재 전집』 제3권, 평민사, 1987, 219쪽.

이로써 굴속에 부부가 들어가게 된 것은 낡은 사회 질서를 타파할 새로운 질서의 맹아가 ‘마십굴’이라는 자궁에 착상된 것을 의미하며, 굴에서 터져 나온 물에 원님 아들이 휩쓸려 죽음을 맞는 것은 ‘인간 해방’이라는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예고하는 ‘양수’임과 동시에 부조리한 질서를 상징하는 기존 지배계급의 말로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때 굴에서 나오는 물, 즉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예고하는 양수는 부조리한 질서에 대한 마십의 도전이 승리를 거두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물이 된다. 이제 마십의 서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의 모델로서 작용하게 되고,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마을사람들의 분단서사도 마십이 보여준 작품서사로 보충되어 해체와 재구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신이 마주한 분단 상황을 우직한 통합서사로 극복해 내고, 마을 사람들의 분단서사까지도 통합의 서사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모습에서, 남북한 분단 체제의 질서도 소통의 질서로 흘러갈 가능성을 보게 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글에서 문제 삼고자 하는 남북 분단서사의 문제란 ‘통일은 되지 않을 일이다.’라고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을 사유하는 이들의 앞에 놓인 견고한 남북 분단 체제와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퍼져가고 있는 상황은, 바위산을 앞에 두고 마을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는 마십의 상황과도 같다. 자신을 둘러싼 외부로부터 주어진 분단서사를 자기서사로 받아들이어 포기하고 말 것인가, 마십처럼 소통의 길을 뚫어낸 하나의 모델이 되어 분단서사를 통합의 서사로 바꾸어 나갈 작품서사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문제이다. <마십굴>에서 마십 부부의 재결합을 통해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상징하는 양수가 흐르게 되었듯, 통일을 회의하는 사회적 상황에서도 묵묵히 소통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 남북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작품서사가 될 수 있다면, 일견 견고해 보이는 분단 체제의 장벽도 생각보다는 쉽게 뚫어질지 모르는 일이다.

마십의 성공은 그가 누구와도 다를 것 없는 보통 사람이었기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 보통 사람으로서 거대한 장애에 맞서 그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답답할 정도로 정직하게 앞으로만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바보 같은’ 그 길이, 높은 지위나 특출한 재주가 없는 그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길이지만, 누구도 올곧게만 나아가기 힘든 ‘보통의 길’ 말이다. 바로 이러한 인물 형상이 북한의 연구자들이 주목했던, 전형적 인민성의 극치를 보여 주는 ‘인민영웅’의 형상이다. 지극히 전형적인 인민, 즉 보통 사람인 마십이 보여준 영웅의 길이기에 누구나 그 서사를 자기 서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마십이 보여 주는 ‘인민영웅’의 형상은, 계급투쟁론적 시각을 벗어나서 도 인간의 보편적 삶의 문제에 접근하고,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누구나 삶의 과정에서 마십이 겪는 것과 같은 시험을 만날 수 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도저히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상황, 누군가는 마십과 같이 바위에 정을 들이대기도 하고, 누군가는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해 버리기도 한다. 또, 바위를 뚫기 시작한 상황에서도 ‘바보 같은 짓’이라는 주변의 야유에 꺾여 버리기도 한다. 그만큼 요령을 부리는 것을 영리한 것으로, 묵묵히 할 일을 해 나가는 것을 바보 같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 세상의 시선인지 모른다. 그러한 장애를 뚫고 성취를 이루는 이는, 마십처럼 작은 가능성을 붙들고서 묵묵한 신념의 망치질을 해 나가는 인민적 품성, ‘바보 같은 선량함’을 지닌 사람이며, 그가 바로 전형적인 인민성을 지닌 ‘인민 영웅’, 즉 ‘민중 영웅’이다.

결국은 남북의 분단서사를 극복하는 길도 특별하고 그럴듯한 왕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앞에 놓인 분단 체제의 질서가 크고 단단한 바위산 같더라도 신념을 가지고 직면하

여 끊임없이 굴을 뚫어가는 작업, 그것은 통일의 당위성을 믿고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수해 나가는 우직한 걸음이다. 그러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의 서사를 작동시켰던 마십처럼 조금씩 우리의 분단서사를 통합서사로 바꾸어 나간다면, 마십이 바위산 속에서 이미 준비된 동굴 길을 발견했듯이 단단한 장애물로만 보였던 분단의 벽속에 감추어진 통합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4. 북한 설화에 대한 연구에 작용하는 분단서사의 극복 가능성

북한 설화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마십굴> 전설의 서사는 북한 설화를 연구하는 우리 연구자들의 분단서사를 어느 정도 투영하고 있다. 북한은 노동 인민계급에 의한 체제의 성립을 표방하는 만큼, 인민의 창작물로 여겨지는 구비문학 분야에 큰 의미를 두고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설화에 의한 인민 교양에 주력하고 있다. 인민 교양 사업의 선봉에서, 사회과학원 주도로 이루어지는 북한의 설화 연구가 체제에 호응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도 분명하다. 설화에 대한 북한의 논의를 접한 많은 연구자들이 그로 인한 남북한의 관점 차이에 집중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목격한 차이가 남북한이 설화 연구를 통해 소통하는 데 장애로 작용할 것이라 우려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마주한 장애물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재보기 위해 바위산 주변을 빙빙 돌고 있는 것이 북한 설화에 대한 우리 연구의 실정인 아닐까 싶다. 그러나 장애물의 크기를 확인할수록 그것을 뚫어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엄두를 내기 어려워진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북한 설화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우리 연구자들에게 작동하고 있는 분단서사의 단면일 수 있

다. 이에 본 장에서는 <마십굴> 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의 연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남북한의 연구가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북한에서 ‘구전문학’²⁷⁾이라 지칭되는 구비문학 분야에 대한 연구는, 남한에 비해 앞선 측면이 있다. 1971년에 남한에서 구비문학 전반에 대한 개론서인 『구비문학개설』(장덕순 외, 일조각)이 출간된 것에 비해, 북한에서는 이보다 10년 가까이 앞선 1962년에 『조선구전문학연구』(고정옥, 과학원출판사)가 출간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북한의 구전문학에 대한 관심이 시기적으로 남한에 앞서 있었음을 반영한다. 북한 구전문학 연구의 선구자이자 『조선구전문학연구』의 저자인 고정옥은, 책의 첫머리에 ‘위대한 예술적 창조자로서의 인민’에 대한 선언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이는 당의 정책 노선과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인민은 과거와 현재의 모든 물질적 부의 창조적 역량일 뿐만 아니라, 인류가 이룩한 모든 정신적 보물들의 유일하고도 무진장한 원천이다.

인민은 언제나 가장 현명한 철학자이며 가장 월한 예술의 창조자이다. 지상의 모든 의의 깊은 비극들과 모든 위대한 서사시들은 인민의 집체적 재능에 의하여 창조되었으며 전 세계의 찬란한 문화사는 바로 인민의 지혜와 그의 창조적 역량에 의해서 개화 발전하여 왔다.

정신적 보물을 만들어 내는 인민의 창조적 위력은 언어를 수단으로 하는 인민 창작에서도 찬란하게 발휘되었다. 작가 예술가들에게 항상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을 인민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복무하도록 고무 추동하고 있는 조선 로동당은 일찍부터 《위대한 예술의 창조자는 인민이라는

.....

27) 이후로 구비문학 분야에 대한 북한의 논의를 언급할 때에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구전문학’이라 명명하도록 하겠다.

것》을 우리 작가 예술가들이 명심할 것을 교시하였다.²⁸⁾

이처럼 북한에서는 일찍부터 ‘인민의 집체적 창작물’로서의 구전문학 분야에 관심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구전문학이 지닌 ‘인민성’이 노동 인민계급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명분으로 하는 북한 체제의 정체 성과도 부합하는 것이었기에 그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장려되었으리라 예상되는 부분이다. 물론 이러한 점에서 고정옥의 연구가 북한 체제에 봉사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그로 인해 그 연구 성과의 신뢰성을 문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구전문학에 대한 고정옥의 연구는 당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인민공화국 건설을 위한 체제의 호명과, 인민성을 구전문학의 핵심으로 여겼던 고정옥의 학자적 신념이 맞물린 결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²⁹⁾

.....
28) 고정옥 저·신동훈 해제, 『조선구전문학연구』, 민속원, 2009(원저는 1962년 출간), 1쪽.

《》는, 《전체 작가 예술가들에게》, 1951년 6월 30일(《김일성 선집》, 1954년 판, 제3권, 246 페이지.)를 본문에서 재인용.

29) 그에 대하여는 해당 연구서를 해제한 신동훈의 언급을 참고할 수 있다.

“그는 월북 이전에 이미 민요 연구로 일가를 이루었지만, 당시 우리 학계의 분위기는 아직 민요나 설화 등을 온전한 문학연구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쪽이었다. 그것은 주로 민속학의 대상으로 취급되었으며, 문학적으로는 기록 문학의 원초형이라는 차원에서 관심을 끄는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요의 문학적 가치를 힘주어 내세운 고정옥은 이방인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만큼 그의 노력은 외롭고 힘겨운 것이었다. 이런 학계의 사정과 함께, 현실적으로 구비문학이 급속히 해체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그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런데 북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북한 학계에서 민중은 역사의 주체, 문학 창조의 주역으로 대접받고 있었으며, 고정옥이 추구했던 민중 주체의 문학관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신동훈, 「고정옥의 삶과 학문세계(하)」, 『민족문학사연구』 제8집, 민족문학사학회, 1995, 227쪽)

이처럼 고정옥의 『조선구전문학연구』는 인민창작으로서의 구전문학을 집대성한 선구적 업적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북한 구전문학 연구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유력한 저작이라 할 수 있다. <마십굴> 전설에 대한 처음의 논의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후에 출간된 『조선구전문학개요』³⁰⁾와 『조선구전문학연구』³¹⁾에서도 그에 준하여 <마십굴> 전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에 고정옥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다른 두 개론서를 참고하는 것으로 <마십굴>에 대한 북한 연구의 전모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겠다.

고정옥은 <마십굴> 전설이 봉건 통치 계층에 대한 노동인민 계층의 계급투쟁을 그리고 있다고 본다.

《마십굴》 전설은 선량하고 근면하며 남이 곤경에 빠졌을 때는 자기희생적으로 그를 구원하며 자기 앞에 가로 놓인 난관은 반드시 극복하고자 마는 강인한 의지력을 가졌으며, 또 자기의 행복을 짓밟는 자는 그가 비록 생살여탈의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를 끝끝내 싸워 이기는 그러한 성격의 마십과, 그리고 슬기롭고도 인정이 두터우며 녀성으로서의 고상한 도덕적 품성을 가진 그의 안해를 긍정적 주인공으로 하고, 인민을 착취하여 놀고 먹으면서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관료배들의 부패한 생활 습성을 대표하는 원의 아들과 그를 추종 방조하는 하례배들을 이에 대치시키면서 선량한 사람들의 자기희생적 동정이 어떻게 악랄한 인간들의 배은망덕으로 인해서 유린되며 가난하나 평화스러운 인민의 생활이 어떻게 지배자들의 탐욕에 의해서 무참히 파괴되는가를 보여 주고 있는 동시

.....

30) 장권표, 『조선구전문학개요(고대중세 편)』, 사회과학출판사, 1990 ; 리동원, 『조선구전문학개요(항일혁명 편)』, 사회과학출판사, 1994.

31) 리동원, 『조선구전문학연구 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 리동원, 『조선구전문학연구 2』, 문학예술출판사, 2005.

에, 저렬하고 악랄한 인간과의 투쟁에서 승리는 항상 정의의 편에 돌아오고
야 만다는 인민의 신념을 성과적으로 체현하고 있다.³²⁾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전체적인 서사의 갈등을 계급갈등의 문제로 대
치하면서, 계급의 문제는 선(인민)과 악(봉건 통치계급)의 문제로 확대된
다. 이처럼 다소 도식적인 논리의 흐름과 강렬한 어조는, 익숙지 않은 남
한 연구자들에게 경계심을 갖게 하며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신동훈은 고정옥의 자료 해석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계급투쟁론’
의 시각에 주목하여, 부도덕한 지배계급에 저항하는 민중, 즉 ‘인민’의 창
조력과 도덕성에 대한 강한 신뢰가 때로 과장된 형태로 부각되기도 함을
지적한다. 그렇지만 논조의 단호함에 비하면 자료 해석의 결과가 정도를
벗어나는 예는 드문 편이라 부언하고 있다.³³⁾ 말 그대로 다소 과격한 논
조를 접어두고 위의 해석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력자에게 아내를 빼앗긴 마십의 상황이 계급갈등적 요소
를 포함함은 분명하다. 남한에서도 이와 유사한 관탈민녀형 설화들을 해
석하면서 그러한 요소들을 무시하고서는 온전한 논의를 이루기 어렵
다.³⁴⁾ 특히나 〈마십굴〉 전설에서는 아내를 빼앗아간 권력자가 마십에게

.....

32) 고정옥 저·신동훈 해제, 『조선구전문학연구』, 민속원, 2009(원저는 1962년 출간), 128~129쪽.

33) 신동훈, 「고정옥의 삶과 학문세계(하)」, 『민족문학사연구』 제8집, 민족문학사학회, 1995, 231~232쪽.

34) 최래옥은 〈우렁각시〉가 서기에 의해 원에게 정체를 들키고, 끌려가지 않기 위해 하인에게 걸치고 있던 옷들을 건네주는 과정에 대해 평민이 관에 재물을 수탈당하는 과정이 되기도 하고, 곁에서 속으로 차츰 허물어져 가는 약자, 민녀의 안타까운 저항을 뜻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최래옥, 「관탈민녀형 설화의 연구」, 『한국고전산문연구』, 장덕순선생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1981.

생명의 은혜를 입은 바 있다는 점에서, 그 부조리성이 더욱 극명하게 부각되는 바가 있다. 따라서 〈마십굴〉 전설을 계급투쟁론적 시각으로 연구한 고정옥의 논의는 오히려 정곡을 찌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인용처럼 선언적 언급에 그친다면 다소 허무한 논의가 될 수 있겠으나 그 논의를 뒷받침할 만한 나름의 근거들도 충분히 제시되고 있다.

3.2장에서 마십의 행동방식에 대한 논의를 이끌기 위해 빌어온 논의는 마십의 행위를 통해 그 인물형상을 이끌어내는 데 적합한 논의였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마십의 인물 성격에 대한 그의 논의와 이후에 이어진 장권표의 논의는 본고를 이어가는 데 결정적인 힌트를 제공하였다. ‘바보 마십’이라는 인식이 ‘바보 같이 선량한 마십’으로 전환되면서, 마십의 행동 방식과 인물형상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또,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환상성에 대한 논의이다.

마십에게 승리의 현실적 가능성은 극도로 희박하였으나 인민들은 마십이 중도에서 자기의 로력을 포기하고 패배자로 될 것을 원치 않았다. 《마십굴》 전설에서의 중세기적 환상은 바로 이러한 정향의 필연적 산물이다. 정체모를 인물의 등장에 의한 예언적 복선, 그와 관련된 암벽 속에 감추어져

.....

이수자는 〈우렁각시〉 설화의 변이에 나타난 구연자의 의식을 논하며 약자에 대한 강자의 횡포, 그리고 사회 부조리의 고발과 여기에 대한 복수의식 등이 중심이었고 도덕적 당위성도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수자, 「〈우렁각시〉형 설화의 연구—변이양상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7집, 이화어문학회, 1984, 183쪽.

김종균은 〈왕이 된 새샘이〉가 중국 주나라 유왕 때의 ‘포사(褒姒)’이야기에서 ‘웃지 않는 왕비’의 화소를 차용하고 있다고 보며, 그 본질적 의미는 근본을 훼손한 권력에 대한 보복과 함께 방탕한 국왕을 징치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김종균, 「〈왕이 된 새샘이〉 설화의 서사적 특성과 의미」, 『겨레어문학』 제38집, 겨레어문학회, 2007, 145~146쪽.

있었던 동굴의 비밀은 이 전설의 슈제트 선에 놓인 슈제트 발전을 위한 중요한 거점들로 된다.

인민들은 이러한 정체 모를 인물을 설정함으로써 많은 경우에 생활의 난관에 부딪쳐 고민하는 주인공을 곤경에서 구출하며 이야기의 매듭을 푸는 실마리로 삼고 있다. 곤경으로부터의 주인공의 구출은 바로 설화의 주인공을 통한 인민 자신들의 념원의 달성을 의미한다. (중략) 《마십굴》 전설에서 정체모를 인물은 무제한한 로력으로써도 달성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백날의 로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인공을 도와주고 있는 동시에 주인공의 의지의 힘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시험함으로써 주인공의 념원이 실현되도록 하고 있으며 또 이야기의 매듭을 풀어 주고 있다.

이야기의 대단원에 가서도 《이변》 들이 련달아 일어남으로써 주인공으로 하여금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게 한다.³⁵⁾

여기서는 조력자의 존재와 연달아 맞굴이 뚫어지는 사건에 인민의 염원에 의한 환상이 개입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해석은 설화가 흔히 지닌 환상적 요소의 서사적 역할에 대한 일정한 논리 체계를 제공하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고정옥의 ‘환상’의 문제에 대한 시각에 대해 신동훈은, 그러한 시각에서 그가 작품을 해석함에 있어 ‘미학적 특성’ 및 ‘시대적 조건’을 진지하게 따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환상’을 곧 ‘한계’로 간주하는 식의 단순논리가 아니라, ‘환상’과 같은 미학적 요소를 중세라는 시대적 조건 속에서 규정짓고 그 성격과 가치가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인 바, 이는 전적으로 타당한 것이라고 하였다.³⁶⁾

.....

35) 고정옥 저·신동훈 해제, 『조선구전문학연구』, 민속원, 2009(원저는 1962년 출간), 129~130쪽.

그런데 마십에게 “백날 파면 뚫릴 것이다.”라고 한 인물을 신이한 조력자로 판단하는 것에 조금은 의문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작가에 의해 운색되었다고 판단되는 북한 자료 둘 외에, 〈마십굴〉의 각편들에서는 그러한 인물을 조력자로 판단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 믿었다.’라는 단서만이 있을 뿐, 오히려 『임석재 전집』의 〈말썽굴〉에서는 ‘놀리느라 한 말이였다.’라는 단서가 덧붙여 있고,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마십 이야기〉에서는 해당 서사단락이 누락되어 있다. 이는 〈마십굴〉 전설을 통해 전설의 서사 체계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전달하고자 했던 의도에서 의욕적으로 덧붙은 해석이라 생각된다.

고정옥은 그러한 환상성이 결코 비사실주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며 환상 요소의 개입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해석의 맥락이 조금은 마십의 승리를 빗바래게 하고 〈마십굴〉 전설의 계급투쟁 의식이 지닌 한계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만들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은 사실은 다음의 인용에 잘 드러나 있다.

봉건적 질서가 아직 엄연히 서 있고 인민 대중의 의식 수준과 역량은 아직 미약했던 조건 하에서 인민 창작이 많은 경우에 적의 패망과 인민의 승리를 개인적 관계에서, 그리고 환상적 형식을 통하여 묘사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중략) 작품에서 환상을 통하여 주인공이 승리하며 제기된 문제가 해결되는 이러한 예술적 특성은 우리 중세기 문학에서의 현실을 반영하는 하나의 특수한 방법으로 된다. 환상적 형식은 결코 현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 생활의 진실한 반영을 위하여 복무하고 있다.

.....

36) 신동훈, 「고정옥의 삶과 학문세계(하)」, 『민족문학사연구』 제8집, 민족문학사학회, 1995, 234쪽.

환상은 당시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의 집중적 표현 형식이며 그렇기 때문에 환상 속에는 억압자들에 대한 인민들의 통쾌한 복수와 함께 광명한 앞날에 대한 량만이 담겨 있다. 환상적 형식은 결코 작품의 비사실주의적 성격을 규정하는 척도로는 되지 않는다. (중략) 전설은 또한 마지막에 가서 마십 부부를 굴속에 폐색한 채 이야기를 끝맺음으로써 투쟁이 공공연하게 진행되지 못 하고 따라서 마십으로 하여금 자기의 승리를 모르게 하고 있으며 청중들에게는 마십 부부의 행방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 이것은 봉건 사회에 있어 인민들의 반항이 일반적으로 1대 1로 진행되지 못 한 사실의 형상적 반영이며 또 이러한 대단원은 전설을 향토와 자연에 불가분리적으로 고착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³⁷⁾

환상성은 인민의 계급투쟁 의식을 반영한 것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당대의 사회적·인식적 한계를 보여주는 척도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약점은 이후의 연구에서 〈마십굴〉 전설에 대한 평가를 깎아내리는 작용을 하게 된다. 고정옥이 마십의 선함과 순진함을 인민성의 본질로 보고 그러한 인민성이 봉건 지배계급의 횡포를 극복해 온 민중의 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리동원은 그러한 선함과 순진함이 〈마십굴〉 전설의 본질적 한계로 작용했다고 본다. 물론 그도 〈마십굴〉 전설이 지닌 계급투쟁적 주제의식이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설은 수안군 도하리 50리 굴의 유래를 설명함에 있어서 봉건사회의 착취관계와 지배계급의 비도덕적인 생활관계를 생활내용으로 주고 있으며 농들의 죄상을 폭로하고 인민들의 지향을 실현시키는 데 력점을 찍고 있다.³⁸⁾

.....

37) 고정옥 저·신동훈 해제, 『조선구전문학연구』, 민속원, 2009(원저는 1962년 출간), 130쪽.

하지만 리동원은 마십의 승리가 그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파악한다. 마십의 승리는 그의 '선함에 대한 대가'일뿐, 그의 선함이 직접적으로 승리를 위한 힘으로써 작용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전설에서는 마십을 그저 어질기만 하고 인간의 도덕적 리념과 그 순결성만을 믿는 《선》의 체현자로 등장시켰다.

이것은 전형적인 인물로 형상하지 못한 전설의 본질적인 제한성이다. 말하자면 굴을 파라면 파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소원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무자각한 인물로 형상되고 있는 데 본질적 약점이 있다.

전설은 이런 《선》의 체현자를 등장시켜놓고 그에게 동정을 보내며 결국 제3의 인물, 초인간적인 힘의 도움으로 그의 소원이 성취되고 승리가 마련되도록 해결짓게 했다. 말하자면 인간관계를 선악관계로 설정하고 이야기를 권선징악으로 끌고나가 해결짓게 하였다.

이것은 중세전설이 선을 악과 대립시켜 극도로 과장하였거나 일면화 시킨 데서 오는 것이며 사회계급적 본질을 인물에 체현시키지 못하고 계급적 분석을 가하지 못한 것과 관련된다.

선의 지향을 실현하는데서 전설은 중세기적환상수법을 많이 쓰고 있으며 해결에서 선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전설은 50리 굴에 갇든 이야기를 통하여 당시의 사회관계와 착취자들에 대한 비판폭로의 주제를 실현시키고 있으나 유교도덕적인 것을 절대화하면서 이에 인간관계를 해소시킴으로써 계급관계를 무디게 하고 있으며 인물설정에서도 전형화를 실현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전설창조자들의 시대계급적인식과 세계관의 제약성과 관련되어

.....

38) 리동원, 『조선구전문학연구 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111쪽.

있으며 또한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데서 기존방식과 논리, 도덕적 리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과 관련된다.³⁹⁾

고정옥이 인민성의 전형으로 제시하였던 마십의 인물형상은, 이처럼 후대에 이르러 ‘전형화되지 못하고 중세의 유교이념에 기대고 있는 무자각한 인물의 형상’으로 비추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조력자의 도움이라는 환상적 요소에 의거한 마십의 승리가, 그의 선택이 가진 원형적 힘이 ‘인민의 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만든 이유라고 생각된다. 〈마십굴〉 전설을 통해 전설의 다양한 미학적 가치를 설명하려 했던 고정옥의 의도가 조금 어긋난 상황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마십굴〉의 서사적 힘을 재고하는 일은, 다시 고정옥의 논의에 의거하여 마십을 전형적인 인민의 형상으로 볼 때에 가능하다. ‘초인적 존재의 도움’이라는 윤색을 지우고 그것을 다시 마을 사람들의 조롱으로 되돌리면, 굴을 뚫는 마십의 행위는 더욱 큰 갈등상황 속에서 놓이게 되며 서사적 긴장감은 고조된다. 또한 100일째 날 맞굴이 뚫린 상황을 이변이 아니라 바위산 속에 숨은 맞굴을 찾아낸 것으로 보면, 그 환상은 불가능한 것에 대한 바람이 아니라 극히 어렵지만 가능한 일에 대한 염원이 될 것이다.

이처럼 〈마십굴〉에 대한 북한의 연구는, 낯설고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그 성과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 있다. 그로 인해 남북의 설화 연구가 소통할 길을 모색하고자 한 이 연구가 범박하게나마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남한과 북한의 연구가 접점을 이루는 지점에서 남북의 소통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9) 리동원, 『조선구전문학연구 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112~113쪽.

〈마십굴〉의 서사를 통해 확인했듯이, 스스로에게 특별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길은 장애물을 정면으로 뚫어가며 더딘 걸음으로 나아가는 ‘보통 영웅’의 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도, 남북한 설화 연구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차이’라는 이름의 바위산에 대면하여 그 속에 숨어 있는 ‘동굴 길’을 만날 때까지 묵묵히 소통의 길을 뚫어가는 작업이 될 것이다. 장애로만 보이는 ‘차이’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차이’로 포장된 논의의 이면을 직접 대면해 보면, 그 속에 소통의 길이 숨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외연에 드러난 이질성에 경계심을 갖고 막연한 편견으로 고개를 저을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더딘 걸음을 내딛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서 조그만 소통의 가능성들을 찾아가며 북한의 설화와 설화 연구에 대해 파헤쳐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미리 준비되어 있던 ‘동굴 길’을 만나게 되리라 기대해 본다.

5. 결론

본고는 북한지역의 〈마십굴〉 전설과 그에 대한 북한의 논의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의 설화 연구의 소통 지점을 찾으려는 의도로 작성되었다. 이는 북한의 구전문학 연구에서 〈마십굴〉 전설이 지닌 위치가 남다른면서도, 그 서사를 통해 남북한의 분단서사의 일면을 드러내고 그 극복 가능성을 고찰해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자료의 한계와 연구 역량의 부족으로 범박한 논의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다는 생각이다. 우선, 이야기 속의 부부 이별 상황이 남북한의 분단 상황과 연결될 수 있음을 들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통일 포기’라는 분단서사가 작품 속의 마을 주민들의 모습으로 투영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남북한 분단서사의 전모를 드러낸 것은 아니겠지만, 현 남북 분단 상황에서 주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분단서사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아내를 되찾기 위한 마십의 행동방식을 통해 남북한의 분단서사를 극복할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야기 속 마십은 바보가 아니라 바보 같이 선량한 사람일 뿐이며, 신념을 기반으로 한 우직한 행동력과, 불가능에서 가능성을 찾는 긍정적인 인식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는 비록 특출한 지위와 재주를 지닌 바 없는 보통사람이지만, 50리의 굴을 뚫어가는 굳건한 신념을 통해 ‘민중 영웅’의 전형적 형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거대한 바위산에 가로막힌 듯한 분단의 상황에서, 그러한 민중 영웅의 행동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론은 다소 허무하게 비취질 수 있음을 안다. 뭔가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듯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마십의 형상이 보여 주듯, 가장 기본적인 그 길을 가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기엔, 또 누구도 올곧게 가기 힘든 길이기엔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해야겠다.

이러한 연구는, <마십굴>에 대한 북한의 논의를 적극 살핌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 북한의 설화 연구에 일정한 한계들을 지적하는 논의들도 많고, 남북한 설화 연구의 관점 차이가 감당할 수 없이 커 보이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바위산처럼 보이는 ‘차이’에 주저하지 말고 직면하여 그 세세한 맥락을 살펴보면, 남한의 연구자들로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논의들이 있다. 바로 그러한 가능성들을 찾아 바위산에 굴을 뚫어 가며 소통의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연구자들이 분단서사를 극복하고 통합서사로 나아가는 길일 것이다.

참고문헌

- 고정옥 저·신동훈 해제, 『조선구전문학연구』, 민속원, 2009(원저는 1962년 출간).
- 김문태, 「북한의 설화 연구—북한설화집을 중심으로」, 『누리와 말씀』 6호, 인천가톨릭대학교, 1999.
- 김문태, 「북한의 구비문학 장르 인식과 관점 연구」, 『어문연구』 제33권 3호, 한국어문연구학회, 2005.
- 김영희, 「북한에서의 구전설화 전승과 연구」, 『한국문화연구』 제5집,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2.
- 김의석, 「북한 설화에 나타난 주제론 연구—조총련계 학생용 교재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3권,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2001.
- 김종균, 「〈왕이 된 새새이〉 설화의 서사적 특성과 의미」, 『겨레어문학』 제38집, 겨레어문학회, 2007.
- 김종균, 「북한의 구전설화에 대한 인식 고찰」, 『국문학연구』 22호, 국문학회, 2010.
- 김준기, 「북한의 신화 연구에 관한 고찰」, 『한국문화연구』 제5집,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2.
- 김화경, 「북한 설화의 변개 실태에 관한 연구」, 『인문연구』 제17권 2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6.
- 김화경, 「북한의 설화 연구 실태에 관한 고찰」, 『민족문화논총』 제16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 노영근, 「민담과 ‘아내 찾기’ 화소」, 『어문학논총』 제20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1.
- 리동원, 『조선구전문학연구 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 리진록 외, 『조선민간전설』, 조선민족사, 1990.
- 박재인, 「〈주몽신화〉의 ‘유희’에 대한 북한의 관점과 ‘양육’의 덕목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고찰」, 『겨레어문학』 제49집, 겨레어문학회, 2012.
-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문학사실, 『재미나는 옛이야기』 제3권, 근로단체출판사, 1986.
- 신동훈, 「고정옥의 삶과 학문세계(하)」, 『민족문화사연구』 제8집, 민족문화사학회, 1995.
- 은현정, 「설화에 대한 남북한의 관점과 소통 가능성의 전망—열 설화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논총』 제50집,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2010.
- 이복규, 「북한 설화에 대하여—관련 자료집의 현황과 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제4집,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1.
- 이복규, 『이흥기의 조선 전설집 연구』, 학고방, 2012.
- 이수자, 「〈우렁새시〉형 설화의 연구—변이양상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7집, 이화어문학회, 1984.
- 임석재, 『임석재 전집』 제3권, 평민사, 1987(1932년 채록 자료).
- 장권표, 『조선구전문학개요(고대중세 편)』, 사회과학출판사, 1990.
-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제9집, 2008.
- 정운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통일서사」, 『통일인문학논총』 제47집, 2009.
- 최래옥, 「관탈민녀형 설화의 연구」, 『한국고전산문연구』, 장덕순선생회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1981.
-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46.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8집 14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한정미, 「북한의 설화인식과 전설의 도구화」, 『민속학연구』 15호, 국립민

속박물관, 2004.

한정미, 「북한의 문예정책과 구비문학의 활용 양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논문투고일 : 2013. 4. 22. / 심사완료일자 : 2013. 5. 10. / 게재확정일자 : 2013. 5. 10

Abstract

A Study on the Way to overcome the Epic of Division
through North Korean Folklore 〈A Masip Tunnel〉

Cho, Hong Youn*

Since 90's, north Korean folklore has been studied actively in south Korea, and achieved the desired results. Those established researches have a tendency to focus on a political difference between south Korean and north Korea. However, for looking for a way to contribute to unification, it is important to focus on finding a way of communicating. In this paper, the meaning of north Korean folklore 〈A Masip Tunnel〉 which is important research data in north Korea is studied. After analysing this folklore, it is revealed that 〈A Masip Tunnel〉 can be read as the epic of division. In the future, based on this study, a way to overcome the epic of division would be found.

Key Words North Korean Folklore, 〈A Masip Tunnel〉, The Epic of Division, Unification, North Korea, Orally Transmitted Literature

.....

* Konkuk University Research Corps of the Humanities for Unification